

어떤 주제의 책인가?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강원지부	작은도서관 caru	이선미	체스	다빈치 노벨라	슈테판 츠바이크	슈테판 츠바이크의 입문편으로 접하기 좋은 단편소설. "체스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고독한 투쟁이기도 하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에다움 작은도서관	백정희	데미안	을유문화사	헤르만 헤세	"나는 오직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p145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경상지부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김양숙	브로콜리를 좋아해?	시계절	김지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함께 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소년소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슈빌라움작은도서관	장영숙	모래가 기행	(주)열린책들	니코시 카잔차키스	알음이 늘 순으로 반복되는 타이게토스의 정상으로부터 불의 번개같은 성공, 절음의 순수 속에서 ..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서울서부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이복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	그래의 숲	심순석 시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다들읽작은도서관	박정자	혼노노	창비	생하나	진짜와 가짜를 무엇으로 경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함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도서관(울산북구작은도서	박정자	아웃렛	나무열의자	송광용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런 오히려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	소은미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	상상스퀘어	신영준 고정성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이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	안윤수	리스본행 아간찰차	김영사	파스칼 메르시어	저는 이 번호를 기억하지 않을려고 했어요. 날아가는 편지를 보며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하현숙	이중 하나는 거짓말	문학동네	김애란	스스로에게 회망이나 사랑을 줄 만큼 충분히 감하지 못해 겨우 '할말'을 했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이정희	안녕이라고했어	문학동네	김애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울산경주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최영진	그래도 사랑을	창비	정은숙	중딩 아이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인천지부	흥추는달팽이도서관	최선미	예순 살, 나는 또 꽃잎이 도	휴머니스트	이순자 유교 산문집	가능성과 도전은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단어가 아님을...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국영미	컬자국	창비	김애란	침이 고인다'도 읽어 봐야 겠어요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오유미	그녀를 지키다	열린책들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그녀가 지켰다
5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충청지부	해바라기작은도서관	박면우	채초뜨단편선	민음사	인튼체호프	재채기하루로 시작된 불안이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은행가와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내기의 승자는? 쉽게 읽히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강원지부	뒤투르어린이도서관	봉님	나의 작은책방에게	작은코 도마뱀	에일리 애로	어릴적 작은책방을 떠올리며, 지금 아이들 마음 속에 나의 작은책방(도서관)이 있는가..?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강원지부	양정도서관	김명희	금지된 일기장	한길사	알바 데 세스페데스	나는 항상 나의 삶을 하찮게 생각했다. 결혼과 출산 빼고는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연히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사소한 말투나 단어 선택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만큼,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을 깨달았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김나현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모모	무라세 다케시	연젠가 말하며 출러가는 사랑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 늦는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대구지부	책마실작은도서관	김경희	루이지미셀회고록	물란서책방	루이지미셀	"살을 관통하며 출러가는 사랑은 수많은 미지의 힘을 끌어들이 스스로 변모하고 성장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빌라움도서관	장영숙	삶의 발명	위고	정혜윤	바람, 바다, 외로움, 가난이 암지가 되어 영혼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을 견디는 사람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가차신아래작은도서관놀이	정인숙	긴긴밤	문학동네	루리	외로운것 같지만 외롭지 않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마흔,당신은 이제 행복해?	인생서당	이유경	원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이제야 마음깊이 와닿았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달팽이 작은도서관	박영애	나는 누구인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라마나 미하리쉬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이 누구로 부터 일어나는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대작은도서관	문신임	손절사회	이크로스	이승연	형편 세대와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스스로 줄여가는 역할에 주목하고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가 오히려 더 깊은 고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고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양정달팽이 도서관	전영숙	할매	창비	황석영	육백년을 살아 온 뽕나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 하지만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울림작은도서관	최현선	친애하는 숲씨	이크로스	박상현	내게 익숙한 것의 실체를 보고 바른 판단과 소통을 하자. 편견을 버려야 해.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김소은	나에게 괜찮다고 물어본	스승돌리이프	황광성	만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없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하양작은도서관	배수경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	수오서재	류시화	치음부터 인생을 섬계하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보니 인생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수 있음을 이야기 해 준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햇살작은도서관	박진숙	꽃을선물할게	창비	강경숙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꽃으로 건네는 이야기**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황금동작은도서관	김희정	안녕이라 그랬어	문학동네	김애란	이 많은 스펙트럼의 경청자들을 모두 겪은 듯한 작가의 시침이 대단하면서도 무척 흥미로웠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시 울주군	황금동작은도서관	이정미	재철행복	인플루엔셜	김진지	계절이 기다려지고 매일이 소중해집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가은4형제마을작은도서관	이정희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	0모모	이치조 미사키	밤에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선형성 기억상실증'을 앓는 소녀와 성실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의 풋풋하고 애뜻한 사랑을 그림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골목도서관	이경옥	나는 말이나까 니한테만	문예서포	김소영, 홍아란, 박하람	본가 엄마 인생이 겹쳐보이는 도서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없는 아이	메타포	클레르 마자르	어린 나이의 출산으로 임양을 보낸 아이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다시 만난 아이 '관계'와 '치유'의 이야기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수정	격 없는 우정	클럽북스	어딘 김현아	관계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지기마을10단지(푸른도서;)	김희태	케도 너머	(주)도서출판 푸른숲	카밀라 팡(조은영 옮김)	58쪽 문장, 평생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정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얻을 것이 없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아름동 도서관	백경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페이2북스	태수	강각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김수정(월나비)	천천히 다정하게	인티엔	박용현	"시를 읽는 데에도, 살아가는 데에도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천천히 다정하게 다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시가 어렵다고만 했는데, 저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편안하게 읽고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